



# 국어 5-1

## 5학년 1학기 되돌아보기

1. 대화와 공감 ~ 10. 주인공이 되어

전주송북초등학교

6학년 5반 번

이름: \_\_\_\_\_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

주민: 우리 아빠께서는 길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꼭 가서 말리셔야 하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셔야 해. 무관심은 나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민재: 우아, 너희 아빠 참 대단하시다.

주민: 대단하다고? 글쎄, 처음에 난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 아빠께서 좀 심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지.

민재: 그게 싫었니?

주민: 응, 솔직히 우리 아빠께서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 남을 돕는다고 뛰어들다니 시다가 정작 나랑 할 일을 하시지 못한 적이 꽤 많았으니까.

민재: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1 주민이 아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운동을 좋아한다.
- ②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
- ③ 주변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
- ④ 주민이와 한 약속은 꼭 지킨다.
- 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꼭 도와준다.

2 민재는 어떤 마음으로 ㉠처럼 말했겠습니까? ( )

- ① 궁금한 마음                      ② 섭섭한 마음
- ③ 칭찬하는 마음                  ④ 공감하는 마음
- ⑤ 조언하는 마음

3 다음 친구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쓰시오.

요즘 자꾸 늦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요?

---



---

###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5)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웃어 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4 말하는 이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꽃을 꺾었다.
- ② 친구와 다투었다.
- ③ 마당에 꽃을 심었다.
- ④ 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⑤ 떨어진 꽃잎을 보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5 이 시를 무언극으로 표현할 때 ㉠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떠올려 쓰시오.

---



---

6 다음은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 ( )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방법

- ① 열거                                  ② 비교
- ③ 대조                                  ④ 분석
- ⑤ 분류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가)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 준다.

(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 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이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몰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 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7 주변 환경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 하여 입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① 법관
- ② 의사
- ③ 군인
- ④ 간호사
- ⑤ 동화 작가

8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민규: 글의 구조를 바꾸어서 정리해야 해.  
정수: 먼저 각 문단의 중심 내용부터 살펴보는 게 좋아.  
나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모두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해.

( )

9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는 [ ]을/를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① 주어
- ② 시간
- ③ 장소
- ④ 목적어
- ⑤ 높임의 대상

10 다음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바르게 고

친 것은 무엇입니까? ..... ( )

어젯밤에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 ①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분다.
- ② 오늘밤 비와 바람이 불 것이다.
- ③ 어젯밤에 비가 세차게 불었습니다.
- ④ 내일 비와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 ⑤ 어젯밤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12)

(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글을 쓸 때 흔히 글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쓰기 윤리에 벗어난 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자.

(나) 첫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무엇보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쓰는 경우,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려서 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자. 이것은 과학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11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 ( )

글쓴이의 주장은 ‘[ ]을/를 지키자.’이다.

- ① 건강
- ② 환경
- ③ 어린이
- ④ 우리말
- ⑤ 쓰기 윤리

12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 ① 주장과 관련이 있다.
- ②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 ③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한다.
- ④ 알맞은 낱말을 써서 제시하였다.
- ⑤ 근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았다.

**13** 토의에서 의견을 모을 때 지켜야 할 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14** ‘개교기념일을 뜻깊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수영이와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      )

수영: 학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대회를 하면 좋  
겠습니다. 삼행시 짓기는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구: 대회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은 높아지겠지만  
삼행시 내용이 학교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 ① 의견 모으기
- ② 의견 마련하기
- ③ 토의 주제 정하기
- ④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⑤ 알맞은 의견을 판단할 기준 세우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제주의 동북쪽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 일대는 크고 작은 무수한 오름이 저마다의 맵시를 자랑하며 드넓은 들과 황무지에 오탁하여 오름의 섬 제주에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다량쉬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다랑쉬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다랑쉬오름 남쪽에 있던 마을에서 보면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된바람을 막아 주는 오름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어 보인다고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정겹다.

오름 아랫자락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지가 있어 제법 무성하다 싶지만 숲길을 벗어나면 이내 천연의 풀밭이 나오면서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고 사방이 멀리 조망된다.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 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한 굽이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15** 제주의 동북쪽 구좌읍 세화리 송당리를 ‘오름의 왕국’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 ① 다랑쉬오름이 있어서
- ② 오름 모양이 우스꽝스러워서
- ③ 제주에서 오름이 가장 많아서
- ④ 오름과 관련된 제주도 전설이 있어서
- 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오름이 있어서

16 오름 아랫자락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황무지                      ② 경사면  
③ 천연의 풀밭            ④ 삼나무 풀밭  
⑤ 편백나무 조림지

**17** 이 글의 짜임을 떠올렸을 때,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 ① 여행한 까닭                      ② 앞으로 있을 계획  
③ 여행지에서 다닌 곳              ④ 여행지에서 느낀 것  
⑤ 여행한 뒤에 한 다짐

**18** ‘밤’이라는 말에 다른 낱말을 합해서 새로운 낱말을  
두 가지 만들어 쓰시오.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나무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쓰임도 많은 재료예요. 나무로 만든 악기에는 박, 어 등이 있어요. 나무의 딱딱한 소리는 여러 악기를 모아 합주할 때 연주의 처음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는 나무로 만든 흰 호랑이 등 위에 스물일곱 개의 톱니가 붙어 있는 악기이고, 박은 단단한 나뭇조각 여섯 개의 한쪽 끝을 모아 묶은 악기예요. 박을 연주하는 사람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돌로 만든 악기는 추위나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음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악기의 음을 맞추거나 고르게 할 때 기준이 된답니다. 돌로 만든 악기에는 편경과 특경이 있어요. 편경은 단단한 돌을 ‘ㄱ’ 자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악기로, 돌조각을 ‘각퇴’라는 채로 쳐서 소리를 내요. 돌에서 나오는 티 없이 청아한 소리가 일품이이에요. 편경은 주로 궁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입니다.

**19** 각 전통 악기와 악기의 특징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음의 변화가 심하다.-편경
- ② 나무로 만든 악기이다.-편경
- ③ 각퇴라는 채를 쳐서 소리를 낸다.-박
- ④ 연주의 처음과 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박
- ⑤ 이것으로 연주하는 사람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편경

**20** 이 글을 읽으며 겪은 일을 알맞게 떠올린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두형: 우리 전통 악기가 전시되어 있는 곳에 가 보자.

순례: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서 무척  
속상했어.

연경: 텔레비전에서 「수제천」이라는 곡을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

$$\left( \begin{array}{c} \text{ } \\ \text{ } \\ \text{ } \end{array} \right)$$

**21** 신유와 같이 ‘에어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 보고, 그 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쓰시오.

신유: ‘벤치’는 바람을 맞으며 쉬는 곳이잖아. 그래서 바람과 쉼터를 합해 ‘바람 쉼터’라는 새말을 만들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2~23)

##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장식 기법과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고려청자를 만든 시기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질 높은 청자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청자를 만들고 세상에 알렸지만, 고려는 청자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고려청자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깔로 더욱 주목받았다. 청자의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는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청자의 색이 짙고 푸른색 윤이 나는 구슬인 비취옥과 색깔이 닮았기 때문에 ‘비색’이라 불렀는데, 중국 송나라의 태평 노인이 『수증급』이라는 책에서 고려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 부르며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다.

**22** 고려청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 )

- ① 비색                      ② 우수한 기술력  
③ 아름다운 형태        ④ 독특한 장식 기법  
⑤ 중국 송나라의 도움

**23** 밑줄 그은 부분으로 보아, 읽은 이가 글을 읽은 방법  
은 무엇입니까? ..... ( )

- ① 글 전체를 자세히 읽었다.
- ② 그림을 설명한 부분을 찾으며 읽었다.
- ③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찾으며 읽었다.
- ④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찾으며 읽었다.
- 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찾으며 읽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25)

“그래도 넌 나처럼 잘 못하는 걸 잘하는 척하지는 않  
잖아. 난 항상 내 생각만 했어. 그런데 네가 그게 부  
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려 줬어. 이제 나도 너처럼 못  
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 거야. 그게 진짜 당당해지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

“난 진짜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못하니까 못한다고  
한 거데…….”

나는 또다시 뒷머리를 긁적였다.

“우리 이제부터 한번 잘 지내 보자.”

제하가 내 어깨를 툭 치더니 한쪽 손을 쑥 내밀었다. 제하의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귀가 간질거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녀석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하의 손은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우리가 다정하게 교실로 들어오는 걸 보고 대판이가 고개를 가우뚱했다. ㉠등을 곳곳이 펴고 자리로 걸어가  
는 제하는 황제처럼 당당해 보였다. 가만 보니 꽤 팬츠  
는 녀석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하네 집을 찾아간 건  
잘한 일이다. 사람은 가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24** 제하는 무엇이 진짜 당당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쓰시오.

**25** ㉠으로 알 수 있는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     )

- ① 대광이에게 부끄러움.
- ② 제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 ③ 제하네 집을 찾아간 것을 후회함.
- ④ 반장으로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임.
- ⑤ 뻔뻔스러운 제하의 태도가 못마땅함.